

# 비리 근절 안되는 광주·전남 경찰

### 사채업자 접촉 광양·여수·장흥 경찰 파면·강등

### 미성년자 술 판매 업주 만난 혐의 순천 경찰관 1명도 해임

### 3년간 비위행위 202건 적발...경찰청장 "엄벌" 경고 무색

■ 광양경찰 소속 경위 등 3명은 14일 사채업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파면당했고, 같은 혐의로 여수경찰 소속 경위 1명, 장흥경찰 소속 경감 1명도 각각 강등,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파면된 광양경찰 3명은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유흥업소 업주와 접촉한 순천경찰 소속 경사 1명도 최근 해임됐다.

경찰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총수마다 청렴 강화 발언을 내놓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게 무색할 정도로 현장 경찰들의 일탈 행위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 맞아? 끊이지 않는 비리=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경찰청에

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2~2014년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경찰의 비위 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202건(광주 47건·전남 15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의 경우 2012년 11명에서 2013년 17명, 2014년 18명 등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적발 유형도 개인정보 사적 조회 등 '규율 위반'의 경우가 10명(21.7%), 근무지 이탈 등 직무태만 9명(19.5%), 금품수수·음주운전 각 8명(17.3%), 품위손상 5명(10.8%) 등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중에는 광산경찰서(16명)로 집계돼 불명예를 썼다. 이외 동부경찰 8명, 서부 7명, 북부 6명, 남부 4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남 경찰도 비슷하다. 전남의 경우 최근 3년간 불·탈법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52명으로 집계돼 전국 16개 시·도 경찰서 중 적발된 경찰 숫자가 5번째로 많은 '수모'를 당했다. 박 의원은 이 기간 전체 비위 경찰관은 2834명으로 파악했다.

지역 21개 경찰서 중 도심권에 위치하면서 서 치안 수요가 많은 목포경찰(28건), 순천(16건), 여수·무안(각 11건)경찰의 비위 행위 적발 건수가 특히 많았다.

징계 내용별로는 광주경찰의 경우 견책(16명)이 가장 많았고, 정직(9명)·감봉(9명)·파면(5명) 등 순이었고, 전남경찰은 견책(59명)·감봉(50명), 해임(19명), 정직(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순안서는 경찰, 백악이 무효?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해 경찰 비위 행위와 관련,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한 청렴도 향상을 주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찰의 비위·일탈 행위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영광경찰서 경위는 노래방에서 여주인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 뿐 아니다. 지난해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경찰 청렴도 향상 원년' 선포식을 갖는 등 청렴 경찰을 대대적으로 내걸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때 뿐 달라지지 않았다. 김기용 17대 경찰청장도 당시 부패·비리 적절을 위한 쇄신방안을 내놓는 등 경찰 치안 책임자는 매년 '청렴 경찰'을 외쳤지만 '경찰'을 욕보이는 사건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2010년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방침을 세워 성매매 업소, 유흥 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 대부업자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했고 2013년에는 불법 업소에 대한 정보 획득 과정에서 접촉할 경우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투명한 단속 과정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북부경찰 소속 경찰은 이같은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14일 오전 여수시 화정면 사도 인근 해역에서 국내 유일 범선 코리아나호가 좌초돼 승선인 38명이 구조됐다. 사진은 좌초한 범선에서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는 모습.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국내 유일 범선 여수 앞바다 좌초...탑승자 전원 구조

국내 유일의 범선(帆船·돛단배)이 승객 등 30여명을 태우고 항해하다 좌초,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해경은 "출항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수십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지 여부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물때(바닷물이 들고 날 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장 실수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여객 운송을 했

지 여부도 조사에 나섰다.

14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께 여수시 화정면 사도 북동쪽 500m 해상에서 소형요트경기장으로 향하던 범선 코리아나호(82t급·돛대 높이 30m·여수선적)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해경은 인근을 지나던 고기잡이배 선주 추모(41·백야도)씨의 좌초 신고를 받고 출동, 경비정(500t급) 등 7척을 동원해 38명

(선원 4명)을 구조했다.

선장 정모(67)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잠기는 높이(2.8m)보다 수심이 깊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암초에 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 경위 및 선장 등의 무허가 영업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코리아나호는 지난 1983년 네덜란드에서 건조된 뒤 일본에서 운항하다 여수 모조선소에서 수리 중 경매를 통해 현 소유주에게 팔려 여수 일대에서 항해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남편 도의원 당선 도우려

### 상대후보 허위 사실 유포

###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남편의 당선을 도우려고 "상대방 후보가 인척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여·51)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떠돌던 소문을 일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3년)을 벗어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애초 구형한 형량(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한 도로에서 B씨에게 "(남편과 경쟁하는)도의원 후보가 처조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범죄가 기부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아 남편의 직위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8    달출 04:13    달몰 18:21

**한낮 '후텁지근'**  
제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21/29	보성	흐림	18/26
목포	흐림	19/26	순천	흐림	20/29
여수	흐림	20/24	영광	흐림	18/27
나주	흐림	20/29	진도	흐림	18/26
완도	흐림	19/26	전주	구름많음	21/29
구례	흐림	18/31	군산	구름많음	20/26
강진	흐림	20/27	남원	구름많음	20/28
해남	흐림	19/28	홍산도	흐림	18/22
장성	흐림	18/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북서~북 0.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0.5~1.5	북동~동 0.5~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00	06:21
	13:05	18:28
여수	밀물	썰물
	08:03	01:55
	20:38	14:02

◇주간 날씨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	☀	☀	☀	☀	☀	☀
20/30	19/29	19/30	20/29	19/28	19/29	19/29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40
- 운동
- 40
- 빨래

## "日 전범시설 세계유산 등재 반대"

### 미쓰비시重·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18명

###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호소문 발송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18명

은 "일본 전범기업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피해자 호소문"을 공동 작성,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발송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 시설이었던 하시마 탄광, 미쓰비시 조선소, 아하타 제철소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며 "전범 기업들은 식

민지 조선에서 우리들을 강제로 끌고 가 노예처럼 강제노동을 시켜놓고 단 한 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고 일제의 보상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마땅한 사죄와 보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문화재청수국제연대와 함께 오는 7월 6~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열리는 독일 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시설 유네스코 등재 반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모임 등은 독일 현지에서 유네스코 관계자와 교포·유학생 등을 만날 계획이며 후원 모금활동(hope.daum.net)을 진행 중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텔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